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의 필요성과 특성

The Necessity and the Characteristic of Picture Books for the Silver Generation

이 서, 오치규

충남대학교 대학원 산업미술학과

Shu, Li(lishu0727@hotmail.com), Chi-Gyu Oh(ohchigyu@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의 필요성과 특성을 학문적 고찰을 통해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의 디자인적 특성들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고령화 현상과 문헌정보학, 교육학, 문학치료학 등 문헌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그림동화책은 실버세대들의 심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지만 실버세대를 위한 동화책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실버세대를 위한 동화책 연구개발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버세대의 시각기관, 몸 기능, 심리적 요인 등 특성을 반영한 그림동화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실버세대를 위한 동화책을 디자인 할 때 그림의 특징 요소 중 스토리내용, 그림(표현방법, 크기, 레이아웃, 구도, 색채), 타이포 등에서 실버세대들의 독서 장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버세대의 특성에 맞춰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의 구성에 적합한 디자인적 특성이 입체적인 분석 데이터를 연구함에 있어 선행 자료의 일부분으로 활용 되길 기대한다.

■ 중심어 : | 실버세대 | 그림동화책 | 동화책의 필요성 | 실버세대의 특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sign characteristics of picture books for silver generation empirically through academic consideration of necessity and characteristics of picture books targeting silver generation. Through an analytical result of literature materials such a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edagogy, and literature therapeutics, and aging phenomenon, picture books help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silver generation, but picture books for silver generation are insufficient in comparison with demand. Therefore, a theoretical basis of study and development of fairy tale books for silver generation is acutely needed. This study suggested that close attention for characteristics of silver generation is needed to solve a problem about dyslexia of silver generation in story, picture(expression, size, layout, structure, and color), and typography of characteristic factors of picture on designing fairy tale books for silver generation, suggesting needs to develop picture books reflecting characteristics such as visual organ, body function, and psychological factor of silver generation. In addition, design characteristics for composition of picture books for silver generation will be used as part of advanced data in a study on solid analytical data through an actual analysis on silver generation in the fu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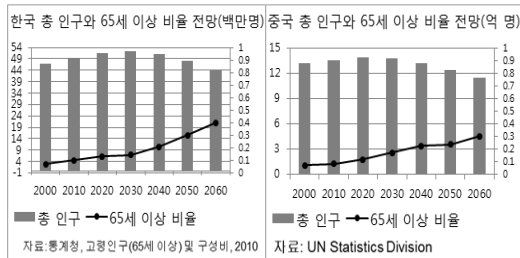
■ keyword : | Silver Generation | Picture Books | Necessity | Characteristic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를 말한다(7% 이상).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13년 613만 명에서 2024년 984만 명 수준으로 60% 가까이 증가하고 향후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8%가 되어 ‘초 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전망이다[22].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2010년부터 65세 이상의 인구가 7%를 초과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유관 부서의 예측에 따르면 2015년에는 중국의 고령인구수가 약 4.15 억 명으로 세계에서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출생률의 저하, 사망률의 저하에 있다[1]. 따라서 독거노인, 질병, 빈곤 등 실버세대에 대한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버세대를 위한 디자인은 고령화 사회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표 1. 한국[2], 중국[3]의 인구와 65세 이상 비율 전망



실버세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자인 황인담은 독서요법 프로그램은 실버세대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주장했다[4]. 교육학자인 박소현은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은 실버세대의 독서태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실버세대에게 평생학습의 일환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키

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5]. 문학치료학자인 한예희는 그림책을 활용한 회상중심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실버세대의 자기존중감과 자아 통합감을 높이는 것에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6]. 하지만 긴 문장, 작은 텍스트, 복잡한 내용의 책은 실버세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실버세대들의 시력, 기억력, 인지능력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이 출판되고 있으며 실버들을 위한 전문 도서코너가 따로 있지만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 창작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 등 관련 연구 문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의 필요성과 특성을 학문적 고찰과 실증적 제시를 통해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의 디자인적 특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교육학, 문학치료학 등 문헌연구를 통해 학문적으로 고찰한 결과와 사회적인 현황을 종합하여 그림동화책이 실버세대의 심리와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의 필요성과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버세대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따른 그림동화책을 선별하기 위해 연령별(유년, 소년, 성인)에 따른 각각의 5권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산업에 따른 실버세대의 독서태도 및 실버세대를 위한 디자인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그림동화책을 연령별 대상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그림동화책의 특징으로 각 연령층의 그림동화책에 대한 선호하는 그림동화책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각 연령층 중 인기 있는 5권의 그림동화책의 스토리내용, 그림(표현방법, 레이아웃, 구도, 색채), 타이포에 대해 실증적 비교분석을 통해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이 마땅히 가져야 할 특징 요소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실버세대의 정의

‘실버세대’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7].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을 실버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보편 적이고 국제적인 실버세대의 정의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은 55-64세를 연소 노인(young-old), 65세-69세를 중 고령 노인(middle-old), 70세 이상을 고령 노인(old-old)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8].

2. 실버산업과 실버세대의 독서태도

실버산업은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상품,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다[18]. 고령인구의 증가와 부양외식,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실버산업도 변화한다. 관련 연구결과 따르면 현재 실버세대의 대부분의 소비는 의료관련, 주거관련, 여가활동, 생활관련, 금융보험관련 등이 포함된다. 실버세대들은 자신의 심신의 건강과 여가 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식품, 신체건강, 여가 생활은 실버세대의 생활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지출 분야가 되었다. 실버세대들은 또한 손자 손녀들에게 아동 도서, 장난감 그리고 생활용품 등을 사주는 데 돈을 아끼지 않고 지출한다. 그렇다면 실버세대의 심리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취미 생활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림동화책은 실버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자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

한국 2014년 발표된 ‘2013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의 결과는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71.4%로 2011년의 66.8%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교육학자인 박소현의 실버세대의 독서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일반적인 도서와 비교해보면 그림책은 실버세대의 독서 흥미도와 독서태도를 높게 변화시켰다[5].

그림동화책은 실버세대의 교육, 심리 치유, 정신 치료 그리고 실버산업의 발전 촉진의 방면에서 모두 지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 개발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21].

3. 실버세대를 위한 디자인적 특성

편집 디자인 자체로 봤을 때 텍스트, 글자 사이 거리, 색채, 그래픽, 판식, 재료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 설계 모두 독자의 독서에 영향을 끼친다. 실버세대의 심리와 생리적 특징에 근거하여 도서의 디자인 디테일은 기타 도서와 차별화되어야 한다. [표 2]는 대다수 실버세대의 시각 기관, 신체 기능 그리고 심리 요인의 몇몇 특징을 종결하고 이러한 특징에 근거해서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동화를 디자인 할 시에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를 나열하였다.

표 2. 실버세대의 특성[21]과 디자인 필수적인 요소

	특성	디자인
시각 기관	시력 저하	텍스트와 그림의 크기, 색채는 적당히
	색채에 대한 분별력이 허약	온화하고 뚜렷한 색채선택
	변별력이 부족	조형 특징 분명
	시각적 대비의 정밀도 부족	문자와 배경 간의 대비를 강화
몸 기능	눈을 자극하는 빛	비 반사 용지를 사용
	집중력 저하	불필요한 정보 피면
	느린 반응	정보 혼선을 피해야 한다.
심리적 요인	행동 불편	가볍고 쉽게 읽기
	고독감	인터랙티브, 재미성
	자비감 (自卑感)	신조어 등 피해야 한다.
	단기 기억력 저하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
	추리능력 저하	그림의 연속성
	생활경험 풍부	인생철학

4. 그림동화책의 개념

동화책(Storybook)과 그림책(Picture book)은 매우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동화책’은 어린이에게 들려주거나 읽히기 위하여 만든 동화를 쓴 책이다[9]. 글로 쓰지만 동화책이 있고, 그림과 삽화가 섞인 동화책도 있다. ‘그림책’은 그림을 모아 놓은 책이다[10]. 그중에 이야기 그림책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그림책도 있다. 예를 들면 교과서, 잡지, 시집 등 삽화로 구성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책’과 ‘그림책’은 동일하게 보거나 따로 구분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림동화책

(Picture book of fairy tales)은 그림과 삽화를 중심으로 한 동화책이나 동화를 쓴 그림책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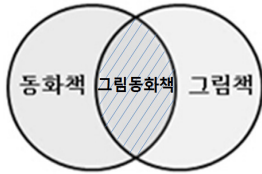


그림 1. 동화책, 그림책, 그림동화책의 관계

5. 그림동화책의 발전사

책은 [표 3]과 같이 전달매체와 내용편성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전달매체에 따라서는 전통 유형의 종이 도서와 전자 유형 도서로 분류되고, 내용편성에 따라서는 문자 중심의 동화책과 그림 중심의 그림동화책으로 분류된다.

표 3. 전달 매체와 내용 편성 방면에서의 도서의 분류

전달매체	전통 유형의 종이 도서
	전자 유형 도서
내용편성	문자를 중심의 동화책
	그림을 중심의 동화책

동화책은 중국의 백과사전인 ‘사해(辭海)’에 나와 있는 정의에 따르면 “동화책은 아동 문학의 일종이다.” 라고 나와 있다[11]. 중국은 이전부터 동화책의 독자층을 아동으로 지정해 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국내의 포털 검색사이트인 NAVER에서도 동화를 검색하게 되면 ‘어린이를 위한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또는 그런 문에 작품으로 정의하고 있다[12]. 그러나 사회 발전에 따라서 작가가 동화책을 자신의 예술적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작품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아동만을 염두에 두고 그림동화책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림동화책의 독자는 영아에서부터 성인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역사적으로 아동도서는 성인들을 위한 책의 발전사를 뒤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 ‘0세부터 100세까지 함께 읽는 그림동화책’ 혹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동화책’등의 이름으로 출판되고 있다. 때문에 전반적

으로 그림동화책의 주 독자층은 아동과 성인까지로 볼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기원 2세기 Apuleius의 소설 <<The Golden Ass>> 중에 <<Amor and Psyche>>를 삽입하였기 때문에 이는 최초의 동화 이야기로 보고 있다 [13]. 그림동화책 초기 역사에서 동화책의 주 독자는 귀족자제들이었고, 1920년대 프랑스의 폴 포세는 동화책이 예술작품일 수도 있지만 주된 기능은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부터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생후 6개월 이전의 영아들과 그 부모들도 동화책의 독자로 수용되고 있다[14]. 동화책 발전사를 보면, 동화책의 발전이 각국의 교육, 인쇄기술, 사회, 경제 등 수많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6. 그림동화책의 역할

그림동화책의 의의와 작용에 대해 말할 때 브루노 베텔하임(Bruno Bettelheim)이 쓴 ‘아동은 동화가 필요하다’(Kinder brauchen Märchen)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이 책은 주로 심리 분석의 각도에서 20여 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책의 문화적 배경과 신화의 근원을 분석하면서 동화와 아동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이 책은 1977년에 출판된 뒤로 몇 년 간 30만부가 팔렸다. 수많은 심리학자, 신학자, 교육학자는 모두 동화가 도덕, 교육, 심리치료 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들 그리고 실버세대까지 모두 동화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15].

중국의 백과사전인 ‘사해(辭海)’에 나와 있는 동화의 정의에 따르면 ‘동화는 풍부한 상상, 환상 그리고 과장을 통해 예술적 형상을 창조한 것으로 우리의 실제 생활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동의 사상과 성격의 성장을 촉진한다. 일반적으로 동화책의 스토리는 기이하고 우여곡절이 많으면서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표현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생동감을 가지고 있다. 자연물에 대한 묘사는 보통 인격화 기법을 사용하여 아동의 수용 능력의 수준에 맞춘다[11].’ 이 정의는 또한 그림동화책의 예술적 특징은 상상, 환상 그리고 과장과 같이 초현실적인 표현 기법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주된 작용은 아동의 사상, 도덕, 교육 그리고 지력의 개발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그림동화책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등장했다. 일부 학자들은 그림동화책의 주된 작용은 단지 아동의 교육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성인들의 심리를 소통시키고 문화 수준과 심미관을 높이는 작용까지 한다고 주장한다[16].

《마음을 치유하는 동화세계2》[17]는 동화를 통한 자기발견, 건강한 몸을 위한 좋은 동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위한 동화 등 5개장으로 엮고 중간에 동화를 소개했다. 현재 응용하고 있는 심리치료법은 300여 종류에 달한다. 그중 민간요법과 현대 의학에 거쳐 검증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존재한다.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는 주요하게 작업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미술활동치료 등이 있다. 문헌정보학자인 조은주와 장혜란은 독서치료가 노인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25]. David Read Johnson은 사상과 관점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언어는 최고의 방법이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그림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했다. 대부분 동화책은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스토리를 전달하는 책이다. 서울재활병원 김성은은 그림치유가 치매노인의 지남력 향상에 따른 인지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24]. 미술치료학자인 김도영은 전래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제시하였다[26]. 치유기능이 있는 그림동화책은 사실상 미술치료법의 일종이다. 몇몇 연구는 심리학적 관점이든 의학적 관점이든 관계없이 그림동화는 심리치료와 정신 치료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림동화책은 교육학 측면과 심리학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동산업 측면, 도서 경제 측면 등에서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문화 그리고 예술 가치를 지닌 그림동화책은 현대 사회의 우등생, 가장 그리고 친지와 친구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림동화책의 주인공 이미지를 통한 상업적 기회 또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림동화책은 유아 교육, 성인들 교육, 심리 치유, 정신 치료 그리고 문화산업이 축진의 방면에서 모두 지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III.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

1. 한국, 중국의 인기 그림동화책 분석

실버세대 그림동화책이 마땅히 지녀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더욱 전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매출이 비교적 높은 그림동화책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이러한 그림동화책들이 각기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표 4. 한국[22], 중국[23]의 인기 그림동화책 TOP10 (조사기간 : 2015.07. 10 ~ 08.10 기준)

	유년 동화책		소년 동화책		성인 동화책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1						
2						
3						
4						
5						
6						
7						
8						
9						
10						

그림동화책의 인기를 더욱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큰 도서 사이트인 중국의 dangdang(当当网)과 한국의 NAVER도서 사이트에서 매출이 비교적 높은 그림동화책(TOP10)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중국의 dangdang.com(当当网)은 주로 어린이 그림동화책과 성인 그림동화책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 어린이 그림동화책은 유년 그림동화책과 소년 그림동화책으로 분류된다. 성인 그림동화책의 주요 대상은 20대 이상의 독자이다[23]. NAVER도서는 그림동화책을 유아그림동화책과 어린이 그림동화책으로 분류하였으며 성인 그림동화책은 소설, 시집 등 분야에서 찾을 수 있었다 [22].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0대 이전(以前)을 유년(幼年), 10~20대를 소년(少年), 20대를 청년(青年), 30~40대를 장년(壯年), 40대~50대를 중년(中年), 60대를 노년(老年)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분류기준은 유년 동화책, 소년 동화책, 성인들 위한 동화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첫 번째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그림동화책은 대부분 외국 도서를 번역하여 다시 출판한 것이다. 예를 들면 안데르센(安徒生)동화와 로알드 달(羅爾德·達爾) 동화 시리즈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기 그림동화책은 대부분 한국 국내 작가의 작품으로 스토리가 한국인의 심미관, 습관 그리고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 그림동화책의 디자인, 발행, 소비자의 소비 관념 등의 차이가 나타났고 이는 실버세대 그림동화책을 개발할 때 마땅히 지역 문화와 기술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4]에 나타나 있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중 E. B. 화이트가 글을 쓰고 가스 윌리엄즈가 그림을 그린 ‘살롯의 거미줄’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의 선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그림동화책이 최근에 연령에 상관없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한국과 중국의 동화 속 삽화비교-살롯의 거미줄

	한국	중국	미국(원작)
표지			
내용 및 삽화			

‘살롯의 거미줄’은 미국 아동 문학사상 수차례 언급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책은 새끼 돼지 한 마리와 거미 한 마리가 서로 돕고 의지하며 두터운 우정을 쌓아가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은 1952년에 처음 출판되어 현재까지 20여 종의 번역본이 이미 발행되었고 1,000만부 가까이 발행되었다. 작가가 쓴 것은 한 편의 동화일 뿐이지만 이 스토리가 독자에게 주는 무한한 온정과 감동 그리고 동경 때문에 이 그림동화책은 성인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그림동화책이다. ‘살롯의 거미줄’은 발행 시기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 안의 삽화는 여전히 예전 책의 화면 스타일을 따르고 있다. [표 5]는 2000년에 한국에서 발행된 한국어판 ‘살롯의 거미줄’이다. 책 내부 페이지의 색상은 모두 흑백이고 문자 비율은 그림보다 약간 크다. 그리고 그림은 대부분 그림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스토리 본문 중 한 두 가지의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 배경만 실는 형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림은 선을 사용하여 실제 그래픽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여 특별히 과장되거나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형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표 6. 한국과 중국의 동화 속 삽화비교-어린왕자

	한국	중국	미국(원작)
표지			
내용 및 삽화			

‘어린왕자’는 독자들이 하여금 영원히 동심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 권의 고전이다. 책 자체의 독서 가치 이외에도 ‘어린 왕자’는 매우 높은 소장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많은 판본이 발행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은 2006년에 한국에서 발행된 판본이다. 이 책은 내부 페이지의 색채가 풍부하고 그림의 비율이 문자의 비율보다 높다. 또한 삽화를 배경으로 넣고 주제에 맞는 간단한 설명글을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 책에서는 그림과 문자가 단지 그림 배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각자 똑같이 동화의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삽화의 표현 기법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물이 과장되고 추상적인 기법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린왕자’와 ‘살롯의 거미줄’의 내용은 실버세대들이 읽기에 비교적 적합하지만 앞서 조사한 [표 2]의 실버세대 대상 그림동화책의 수요와 디자인 원칙의 각도에서 보면 ‘어린왕자’는 문자의 양, 그림의 색채, 형태 등 방면에서 ‘살롯의 거미줄’과 비교했을 때 실버세대에게 더욱 적합하다. 그러나 문자와 배경 간의 대비와 그림 간의 연계성의 각도에서 보면 ‘실버세대 판 어린왕자’는 여전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2. 그림동화책 독자 연령별 비교분석

한국, 중국의 인기 그림동화책 TOP10 에서 보면 ‘어린왕자’와 ‘살롯의 거미줄’은 최근에 연령에 상관없이 인기가 많다. 하지만 인기순위를 보면 성인들이 이 두 권의 그림동화책을 유년, 소년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그림동화책은 스토리의 내용과 삽화로 모든 연령층의 마음을 끌 수 있지만 각 연령별 독자들은 시대적 배경이나 특징에 맞는 그림동화책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유년, 소년, 성인의 선호하는 그림동화책 TOP5를 조사하여 각 연령별이 선호하는 그림동화책의 디자인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표 7. 한,중 TOP5 그림동화책[22][23]
(조사기간 : 2015.07. 10 ~ 08.10 기준)

	유년 동화책	소년 동화책	성인 동화책
1	한국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마법의 설렁 두 조각	 살롯의 거미줄
	중국  爷爷一定有办法	 长袜子皮皮	 夏洛的网
2	한국  사과가 좋아!	 먹 먹는 여우	 연어
	중국  火鞋与风鞋	 查理和巧克力工厂	 小王子

3	한국  달빛 안녕	 먹 먹는 여우와 이야기 도둑	 빨간 머리 언
	중국  我和小姐姐克拉拉	 小王子	 小飞侠彼得·潘
4	한국  권질아	 먹과 노니는 집	 좀더 세 이야기
	중국  迷糊豆和小人精	 笑猫日记	 黄瓜国王
5	한국  강아지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꿩이부리말 아이들
	중국  迪士尼公主经典故事	 夏洛的网	 罗尔德·达尔作品

2.1 스토리의 내용

동화책의 스토리를 보면 유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의 내용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 몇몇 동화는 교육적인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동화는 지식 보유량이 아직 부족한 유년이 학습하기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의 스토리는 비교적 복잡해서 어느 정도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과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인을 위한 동화는 줄거리가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깊은 인생철학과 의의를 담고 있다.

2.2 그림

1) 표현 방법

그림의 표현 방법에서 살펴보면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그림동화책은 모두 손 그림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표현하는 주제와 내용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준 벡터 그림이 아닌 자연스러운 손 그림 스타일을 선택하였고, 사물의 표현과 전달 방면에서 유년 동화책의 형태는 더욱 간결하고 과장되어 있으며 주인공의 이미지는 대부분 변형되거나 간편화 되었다. 그러나 소년 동화책의 그림 주제는 대부분 사실적인 기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동화책 상의 사물의 비율과 현실상

의 비율이 서로 부합한다. 성인을 위한 그림동화책의 그림은 과장되고 단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생활에서 탈피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형상을 기본적인 표현 기법으로 삼고 있다.

2) 크기, 레이아웃, 구도

문자와 그림의 비율에서 보면 유년 동화책에서 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년 동화책과 성인을 위한 동화책을 넘어 섰다. 유년 동화책의 스토리 내용은 주로 그림을 통해 전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년 동화책의 그림은 그림 배치에만 사용되며 스토리의 내용은 주로 문자에 의해 전달된다. 성인들을 위한 동화책의 문자량은 그림의 분량을 훨씬 웃돈다. 그림이 나타나는 빈도는 보통 4-6페이지에 1개정도 나타난다. 도형의 내용은 연속성이 없으며 단지 동화 스토리 중 하나의 장면이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심리 단계이다. 유년과 비교했을 때 소년과 성인들은 이미 문자를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지각 능력으로 보면 아동과 성인들의 시각, 지각 능력이 유년보다 더욱 성숙했기 때문에 그림보다 문자가 더 많은 책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림의 크기, 위치, 조판에서 보면 유년 도서는 주로 그림과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이 페이지 전체를 차지하기도 하고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한다. 문자는 거의 대부분 간단하고 짧은 단어 혹은 구절 정도이며 여백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 그러나 소년 동화책의 삽화는 대부분 문자 중간에 교차되어 있어 책 전체로 봤을 때 대부분의 페이지가 문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동화책 중에 그림이 페이지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전체 책 페이지의 10%-40%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현재 성인을 위한 그림동화책의 그림은 텍스트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텍스트와 겹치지 않는 공간에 단순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불규칙한 형태의 도형에 불과하다. 이러한 그림동화책은 소설과 같은 유형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두 연령대의 심리와 시·

지각 차이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3) 색채

색채를 보면 유년 도서가 더욱 선명하고 간단하면서 비교적 높은 순도를 가진 색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년, 성인들을 위한 도서의 색상은 다변하면서 회색 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유년기 때 회색 톤의 색상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년은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인식할 뿐 빨간색을 차가운 빨간색과 따뜻한 빨간색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은 유년들이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소년들은 자기 자신만의 심미 수요를 가지기 시작하여 현실 중의 사물과 회색 톤의 색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느낀다. 이에 따라 유년 도서와 소년 도서는 각기 다른 색채 특색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림동화책의 디자인 중 색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색채에 대한 느낌과 선호는 사람마다 다르다. 소년의 심리 특징과 심미 능력에서 보면 선명한 색채와 강렬한 대비는 모두 소년들에게 환영 받고 있다. 이러한 색채는 강렬한 시각적 충격과 감화력을 갖게 한다. 대부분 어린이 삽화 작품에서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어린이가 그림을 감상하는 과정 중에 주의를 끄는 것 중 하나는 디테일이다. 그들은 어떠한 디테일을 집중해서 관찰하느라 전체를 소홀히 하거나 혹은 전체에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은 회화 작품을 감상할 때 종종 그림 속의 화려한 색채와 무늬에 매료되어 형상을 간과한다. 어린이는 그림을 그릴 때 인물 혹은 동물의 모양과 색채를 그려내는 데 집중하느라 인물 혹은 동물의 바깥 윤곽의 존재를 간과하기도 한다. 성인을 위한 동화책에는 주로 검은색, 흰색, 회색 이 세 가지 색상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성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들이 외국 원작을 번역하여 옮긴 뒤 출간된 것이라 원작 출판 시기의 인쇄 기술 수준이 현재 기술 수준과 달라 흑백으로 출력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인쇄 기술 수준과 독자들의 심미관, 독서 습관에 맞는 적합한 성인 동화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3 타이포

텍스트의 색채를 보면 독자로 하여금 문자의 가독성을 위해서 대부분의 서적은 검은 색을 기본 색채로 사용하고 있다. 텍스트는 등글고 부드러운 판별하기 쉬운 텍스트를 선택한다. 문자의 조판 간격에서도 또한 어린이의 시각 특징에 맞게 너비와 간격을 설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 글자 크기에서 유년 도서는 어린이 도서의 글자 크기보다 약간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을 위한 동화책의 텍스트는 일반도서와 비슷하여 변한 부분이 없다.

3. 분석결과

간단히 말하면 현 시장에서 세 가지 연령층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창작한 그림동화책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욱 편리하게 세 가지 종류의 그림동화책을 비교하고 대상 독자의 특징에 따라 특수한 디자인을 진행하기 위해 아래에 분석 결과를 종결하여 [표 8]로 정리하였다.

표 8. 한국 NAVER책 홈 TOP5 그림동화책 내부 분석

	유년 동화책	소년 동화책	성인 동화책	
스토리의 내용	단순하고 작은 정보량	스토리가 풍부	의미가 심원	
그림	표현 방법	과장된 형태, 간단한 도형	구상적인 형태, 선을 많이 사용	구상적인 형태, 선을 많이 사용
	크기, 레이아웃, 구도	그림<문자 그림을 배경으로	그림<문자 그림과 문자가 함께 정보를 전달	그림<문자 도형은 단순한 보조 작용
	색채	부한 색채 높은 순도 배경 색깔	은화, 그레이 톤 색채, 흑백 배경, 흰색.	은화, 그레이 톤 색채, 흰색 배경.
타이포	다양한 텍스트.	적당한 글씨 크기, 큰 간격, 통일된 텍스트.	작은 텍스트, 작은 간격, 통일된 텍스트.	

4.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의 특성

시각 인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실버세대의 시각 인지 능력은 유아의 시각 인지 능력과 비슷한 수준이다. 보통 실버세대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탓에 작은 글씨나 멀리 있는 글씨를 잘 읽지 못한다. 그러므로 실버세대는 아동 동화책의 글씨 크기, 간격, 텍스

트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보통 성인들에 비해 실버세대의 색채 분별 능력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비슷한 색상을 한 그림 안에 모아 놓으면 색채 대비가 선명하지 않아 색상을 잘 분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색상 대비를 높일 수 있는 색상 조합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실버세대의 시각 인지적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특징에 부합하면서도 다양한 국가와 심미적 수요 및 습관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동화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신 인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실버세대의 정신 인지 능력은 성인들의 정신 인지 능력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별다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지나치게 단순한 그림이나 스토리는 이러한 정상적인 실버세대 독자들의 수준에 맞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 동화책과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을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보통 실버세대와 달리 실버세대 치매를 앓고 있는 실버세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을 만들려 한다면, 보통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보다 그림의 수량과 크기를 늘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단순화시키며, 심오한 의미나 이해하기 어려운 뜻을 담고 있는 단락이나 문자를 최대한 줄여 실버세대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들은 동일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림동화책의 단일함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버세대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림동화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버세대를 위한 동화책의 기본적인 틀에서 어느 정도 조정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앞서 말한 실버세대의 생리 및 심리적 특징에 근거하여 실버세대의 그림동화책에 대한 수요와 디자인 원칙을 종결하였으며 사례 분석을 통해 유년부터 성인들까지 각각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동화책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하고 귀납하였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도출한 결과에 근거하여 실버세대 동화가 마땅히 가져야 할 특징 요소를 분석하여 아래의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이 마땅히 가져야 할 특성 요소

스토리 내용	실버세대의 여러 가지 특성과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줄거리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내재되어 있는 철학과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림	표현 방법	선은 간단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피해야 하고 사물의 형태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형태와 흡사하여야 하며 도형이 전달하는 정보는 정확하면서도 문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크기, 레이아웃, 구도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하고 스토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선명하고 문자와 그림 배경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식별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색채	지역의 색채와 문화에 따라야 하며 색채의 종류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색채 배합은 차분하게 해야 한다.
타이포	검은색 등을 사용하여 실버세대들의 독서 습관과 색상, 텍스트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텍스트와 배경 간의 대비를 강화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V. 결론 및 연구의 발전방향

1. 결론 및 시사점

노인의 인구 비례가 증가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때문에 실버세대의 부양 문제, 주거환경, 심신건강은 여러 부문 학자들이 관심사이고 주요 연구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령화 사회현황과 문헌정보학, 교육학, 문학치료학 등 문헌자료의 분석결과들을 통해 그림동화책은 실버세대들의 심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을 디자인 할 때에는 크게 스토리내용, 그림, 타이포의 특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림에서는 표현방법, 크기, 레이아웃, 구도, 색채 등에서 실버세대들의 독서 장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스토리내용에서는 실버세대의 여러 가지 특성과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줄거리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내재되어 있는 철학과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친밀감을 주면서도 간단한 손그림 스타일을 사용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삽화의 스타일은 통일되어야 하며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실버세대를 위한 그림동화책의 그림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선은 간단하면서 불필요한 정보를 피해야 하고 사물의 형태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형태와 흡사하여야 하며 도형이 전달하는 정보는 정확하면서도 문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크기, 레이아웃, 구도는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하고 스토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선명하고 문자와 그림 배경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식별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색채는 지역의 색채와 문화에 따라야 하며 색채의 종류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색채 배합은 차분하게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선을 위주로 하여 실버세대 스스로 채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호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이포는 검은색 등을 사용하여 실버세대들의 독서 습관과 색상, 텍스트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텍스트와 배경 간의 대비를 강화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여 디자인한 그림동화책이야말로 실버세대들이 필요한 도서라고 생각한다.

2. 발전방향

본 연구는 고령화 현상과 문헌정보학, 교육학, 문학치료학 등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조사된 내용이므로 본 연구에서 의도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아직 디자인적 관점에서 그림동화책에 대한 분석이 많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내용이 지엽적으로 적용되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연구 분석 자료로 활용된 부분이 전문도서 분야가 아니라 특정 포털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출판사 및 서점들 간의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는 분석하고자하는 국가의 전문 서적 취급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적용하려한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동화그림책의 구성에 적합한 (UX) 디자인 및 타이포 그리고 색채 등의 입체적인 분석을 통한 실증적이고 적용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려한다.

참고 문헌

[1] 박정호,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click경제교육, Vol.137, pp.6-7, 2015.

[2] 통계청,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2010.

[3]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5.

[4] 황인담, *독서요법이 경증치매노인의 인지력과 우울증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5] 박소현, *노인 대상 독서프로그램에서 그림책 읽어 주기의 효과*, 가톨릭대 석사학위논문, 2014.

[6] 한예희, *그림책을 활용한 회상중심 문학치료가 노인의 자기존중감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7] 조은정, 이광호, “silver-age의 web-interface에 관한 연구,” 조형연구, 제9권, pp.111-124, 2001.

[8] 이인수, *현대 노인복지론*, 양서원, p.31, 1999.

[9] 김일태, 윤기현, 김병수, 설중훈, 양세혁, *만화애니메이션사전*, 2008.

[10] 한국사전연구소, *미술대사전(용어편)*, 한국사전연구소 편집부, 1998.

[11] 辭海 [Z], 上海辭書出版社, p.5071, 1999.

[12] 네이버, *동화*, 조사기간 15.11.1 ~ 11.30. 기준

[13] Marie-Louise von Franz, *The Interpretation of Fairy Tales[M]*, Shambhala Publications, Boston London, p.3, 1996.

[14] 현은자, *세계 그림책의 역사*, 학지사, 2008.

[15] 圣才學習网, *關於童話故事的心理學分析*, 2012.

[16] 洪汎濤, *童話學 [M]*, 合肥, 安徽少年儿童出版社, p.26, 1986.

[17] 지그프리트 브로케르트, *마음을 치유하는 동화 세계 2*, 2000.

[18]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png 지식엔진연구소.

[19] 丁元元, *老年繪本”竟要去儿童書架尋找*, 上海老年報, 2013.

[20]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308

[21] 정현희, 이은지, *노인미술치료*, 학지사, pp.77-81, 2007.

[22] <http://book.naver.com/>, 2015.7~8.

[23] <http://www.dangdang.com/>, 2015.7~8.

[24] 김성은, “지남력 향상을 위한 임상미술치료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임상미술치료학연구, 제3권, 제2호, pp.104-114,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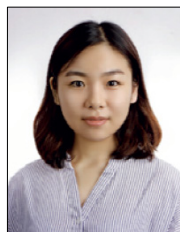
[25] 조은주, 장혜란,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노인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4호, pp.259-281, 2010.

[26] 김도영, *전래동화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2015.

저자 소개

이 서(Shu, Li)

정희원



- 2010년 : Tianjin Polytechnic University 문학 학사
- 2012년 : 배재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
- 현재 : 충남대학교 대학원 산업미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일러스트레이션, 동화책, 시각디자인

오 치 규(Chi-Gyu Oh)

종신회원



- 2000년 4월 : 일본 니혼대학 대학원 예술학박사
- 현재 : 충남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컨셉디자인, 리인커네이션디자인, 디자인의 창의성과 리더십, 시각디자인